

140년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 명맥 위기

인구감소·고령화로 최소 인원 500명 동원 어려워

郡 '군민의 날' 시연 행사 배제...지역 문화계 반발

140여년 동안 장흥지역에서 전승돼 온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인 '장흥고싸움 줄당기기'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고출 제작이 어려운데다 장흥군의 무관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흥군이 최근 5월1일 개최 예정인 '제45회 장흥 보림문화제'(군민의 날)에서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 시연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지역 문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고출 제작에 따른 전문 기능보유자 확보와 인력 동원(최소한 500명)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보림문화제 행사에 고싸움 줄당기기 시연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는 장흥도호부 시절인 1872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장흥교

밀에서 서부 고와 동부 고로 나눠 풍년을 축원하는 민속공연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인 1917년에 중단됐다가 지난 1970년 '제1회 장흥 보림문화제'(군민의 날)를 계기로 다시 부활했다.

이후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는 '장흥 보림문화제'를 상징하는 고유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광주 칠석 고싸움과 함께 대표적인 고출형 축제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70년 광주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민속예술 공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1982년 KBS 주최의 '열전 팔도대항'에서 큰 인기를 차지하는 등 문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명칭은 고삼→고싸움→고출삼→고출놀이로 불려오다 민속학자인 고 지춘상 전남대 교수가 연구한 논문을 통해 '고



전승이 끊길 위기에 처한 '장흥 고싸움줄당기기' 시연 모습.

싸움 줄당기기'로 명명돼 오고 있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10여년전부터 '고싸움 줄당기기는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인 만큼 군의 예산 뒷받침 아래 보존회를 설립해 무형문

화재로 보존계승해야 한다'고 군에 건의했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며 "정부가 문화재 관리자원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남도·장흥군 '보건의 날' 기념식...통합의학박람회 성공기원

유공자 표창·건강 강연

전남도와 장흥군은 7일 '제43회 보건의 날' 및 '제67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다짐대회를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전남도·장흥군의회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보건의 날 주제 및 슬로건은 '건강한 식습관',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 시절부터 알맞게 먹고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대비하는 개념을 담았다.

식전행사에선 '나라사랑 댄스' 등 공연과 '통합 암 치료의 재조명'을 주제로 세계 통합의학 전문가인 유희승 대전대 한의대 교수의 강연에 이어 보건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자 60여 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와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40개국 관람객 95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16년 9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김성 장흥군수, 전남도·장흥군의회 의원, 군민들이 7일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2016 장흥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장흥 안양면 통합의학센터 부지에서 개최된다. 현재 1국 2부 6팀으로 조직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린 예정인 '통합의학센터'는 통합의학적 연구, 교육, 치유 기반시설로 올해 초부터 기반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6년 6월까지 건축공

사를 마치고, 국제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의 병원이 참가하는 전문 치료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양농협, 비상식적 대출연장 특혜 의혹

41억 채무자 20개월 연체 경매취하에 이자 일부만 받아

광양농협이 최근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경매취하와 대출연장 조치를 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광양농협 조합원과 채권자에 따르면 광양농협은 최근 순천 모 마트 부지에 대한 40억원대의 경매절차를 취하고 오히려 대출기간을 연장해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광양농협은 지난 2011년 6월 순천지역 모 마트 부지(면적 5257㎡)를 매입한 K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41억원의 담보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K씨는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마트 건물(연면적 1590㎡)을 철거하면서 공사비와 자재대, 철거비용을 업자에 미지급한데다 광양농협에 20개월간의 이자비용 4억원을 연체했다.

이에 폐기물처리 업체와 건축업자는 2013년 12월 마트 부지에 대해 유치권과 경매를 신청했고, 광양농협도 채권확보 차원에서 한발 늦게 경매신청을 했다. 그러나 광양농협은 지난날 돌연 방침

을 바꿔 K씨와 연체이자 1억여원을 우선 받기로 합의하고 경매 취하 및 대출연장을 해줬다. 특히 경매취소 당시 기존 마트 건물은 철거된 상태인데도 광양농협은 건축물 담보대출 7억원까지 그대로 포함시켜 담보대출 잔액(41억원)에 대해 연장해줬다. 더욱이 마트 부지는 국제·지방세 연체로 2014년 9월에 순천세무서에 의해 압류 조치되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축업자 등 개인 기업주만 2억원에 달하는 상태였다.

건축업자 B씨는 "채권금액이 가장 많은 농협이 어떤 의도로 K씨의 경매를 취하해 주고 대출을 연장해 줬는지 모르겠다"며 "영세한 업체들은 현재 자금이 묶여 부도 직전에 내몰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양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이익과 채권 가치가 확실하고, 채무자의 정상화 노력과 의지를 인정해 경매를 취하해 줬다"며 "경매진행시 원금 손실이 크고, 경매 낙찰금액이 생각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경매 취하후 대출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동부지역본부 취급민원 83종으로 확대

전남도는 7일 "동부지역본부가 8일부 터 기존 26종에서 57종이 확대된 83종의도 취급민원을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순천시 출범한 동부지역본부는 동부권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신청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동부지역본부로 위임이 가능한 민원을 최대한 발굴했다. 그 결과 이번 57종의 민원을 추가로 발굴, 지난날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돼 이날부터 처리하게 됐다.

새로 위임된 업무는 집지사업, 신문사업, 방문판매업, 단단계약, 담배수입 판매업, 자동차대여업, 지정정비사업자 등록민원과, 요양보호사, 장제지도사, 안마사 등 자격증 재교부 민원이다.

대상 지역은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권 7개 시·군이다. 또한 동부지역본부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라도 민원인이 동부지역본부를 방문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 담당자가 도청에 직접 이송해 처리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수산업경영인 45%...전국 최다

773명...젊은층 비율 높아

정부의 수산업력 양성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전국 수산업경영인 172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73명이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지난해(517명)에 비해서도 256명이 늘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수산업경영인 가운데 45%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 320명(18.6%),

충남 131명(7.6%), 전북 98명(5.7%), 경북 97명(5.6%), 제주도 92명(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국 820명(47.7%) 중 전남이 322명(41.7%), 30대는 전국 594명(34.5%) 중 전남이 318명(41.1%), 20대 미만은 전국 228명(13.3%) 중 전남이 110명(47.2%)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전남으로 돌아오는 20~30대 젊은 층(55.3%)이 전국(47.8%)에 비해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모빌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평 1010㎡(305) 4억 5천
- 사할, 기도원, 요양시설 적합 보성군 문곡면 땅 2092㎡(633) 건평 874㎡(264) 은행 1억5천 매도 1억 7천
- 레스토링, 카페숍,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중에서 5분거리 영일빌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가능 5억7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평 601㎡(185) 공시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원룸 22개와 투룸 8개 건물 대지 497㎡(150) 건평 1490㎡(451) 은행 5억천 보증금 1억3천선 월 500천 수익 7억7천
- 서구 치평동 유흥업 중심건물 대지 746㎡(226)건물 4617㎡(1397) 은행 30억 보증금 4억6천 월 4600 선수익 매도 63억
- 영일군 칠출산 관광지시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5㎡(630) 민택·식당·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 매도가격은 협의의임, 전회요한

투자·매도·교환

- 조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인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편성 빌딩 등 적합, 나주시 산포면 790㎡(234) 1억
- 진도군 고군면 백파리산 16860㎡(5100) 2천 5백만원
- 신안군 중도면 솔로스테에 있는 집중지 2248㎡(740) 3억 3천에 매입했던 물건임, 은행 1억6천 매도 2억4천
- 관산구 송정동 상업지역 1117㎡(338) 전세922천 월 210 건물신축에 적합 12억
- 물류창고·공장 적합 관산구 상가동 33000㎡(10000) 26억
- 동명동 조신대 부근 시설 좋은 고사텔 대지236㎡(71) 건물732㎡(2221) 60실 공실유무 은행 3억 4천 월 1200만원 수입 2억2천 노후생활적합 8억 3천
- 동구 금동 상업지역 2층 주택 대지192㎡(58) 건물 193㎡ 임대 3600에 50 교환 가능 2억8천
- 남구 칠산동 제일맨션 89㎡(27) 8층 매도 8400만원
- 관산구 운남동 4월 준공예정일 디세이드 아파트형 74㎡(24) 24층 분양가 1억 8750만원 141㎡(43) 24층 분양가 3억 4400만원 건물 신축할 땅과 교환도 가능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층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방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층 고풍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전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충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담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광천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전(일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농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해남토지구매

▣산이면 구성지구
해남기업관광도시 (J-프로젝트)
토지보상계획지구내토지 650평
평당 13만원
(공시지가 1.3배 가격임)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위원회 구성중
1년내 70%이상 이윤실현가능
2015년 하반기 보상예정

▣문내면 석교리 관리지역
낮은 아산임 5300평
평당 2만 5천원
(폭 6m이상 현황도로 있음)
개발행위허가 가능
목포 생활권임

용도

주택, 밭, 과수원, 목장
사료/퇴비공장, 창고,
태양광(사전준비)
모두가능

문의전화 (지주직접)
010-7979-8257

工場매도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기획관리지역)

- 공장부지 : 대지 14,540㎡
- 도로 : 대형차량 진입 (광주간 15분대)
- 매도금액 : ㎡당 300,000원
- 기타 : 부지, 건물 분할매매 등 협의가함.

건물(근래신축)

길이 폭 높이

1동 1160㎡ (58×20×18m)
2동 1060㎡ (53×20×18m)
3동 330㎡ (관리동)

조 건

광주근거리 최고의 투자가치
정사각 대형 부지로
차량 출입,운반용이
물품적재 등 최적조건 갖춤.

010-5059-5260

법원경매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식당촌인접 지하1층~지상4층
숙박시설 대지1,671㎡
건물 1,010㎡, 위치좋은
감정가 6억2천
최저가 6억2천, 투자적합

서구 광천동 대지273㎡
건물462㎡ 1층~4층,방15개
사거리코너 위치좋은
광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감정가 5억3천6백
최저가 5억3천6백

담양군 금성면 근린시설대지
30,308㎡ 2층건물 2,916㎡
현재 민속박물관(요양병원,
수련원,전원주택개발가능)
감정가 28억 최저가 10억

북구 충효동 전1,147㎡
취가정일일 식당이주단지인접
투자적합,충효동 물건다수보유
최저가 6천5백만원

부동산재테크 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